

## 보물을 알아보는 눈

아름다운 그림이나 천재성이 돋보이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면 말짱 헛일이다.

역사는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지만, 만약 천재적인 화가 반 고흐의 작품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친 삶에 절망한 나머지 광기어린 명작은 아닐지라도 그의 힘찬 필체가 살아있는 그만의 독특한 작품이 좀더 많이 남았을지 모른다. 어쩌면 일찍 꺾어버린 그의 천재성이 다른 모습으로 꽃피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닐까?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그들의 작품을 이



해하고 느낄 줄 아는 조력자인 것이다. 그들은 예술혼이 사라지지 않게 그들의 작품을 모아서

후대에 전달하고, 돕는 역할을 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문화유산의 반 이상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발명도 마찬가지다. 참신한 아이디어의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알아보고 상품화로 이끄는 능력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타율이 좋은 타자는 그만큼 선구안이 좋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뛰어나게 마련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라는 코카콜라를 처음 세상에 선보인 칸도라도 이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좋은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사실 칸도라는 코카콜라의 발명가가 아니다. 그저 우연한 기회에 정체모를 음료수를 맛보게 되었고, 이 맛에 반해 상품화에 나선 것이다.

콜라와의 인연을 맺기 전까지 칸도라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작은 약국을 경영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부러울게 없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마을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그저 평범한 삶이었다. 그런 그의 삶이 바뀐 것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낯선 손님이 방문하면서 부터였다.

그날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그는 가게에 앉아 책읽기에 전념하고 있었다. 꽤 늦은 시간

이라 손님도 없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문을 닫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던 터였다.

한참 책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때에 찌든 작은 보따리가 들려있었고, 그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칸도라는 낯선 손님의 행색을 천천히 뜯어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아무리 봐도, 근방 손님은 아니었다. 먼지에 찌든 외투며, 너털 너털한 신발이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는지 짐작케 했다. 적어도 한달 이상은 떠돌이 생활을 한 듯 했다.

“저, 뭘 사려는데 아니라…….”

낯선 남자는 보자기를 진열대에 슬그머니

올려 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저기, 이 물건을 좀 봐주십사 하구요. 제가 만든 음료수인데…….”

남자는 천천히 머뭇거리며, 보자기를 조심스레 끌었다. 낡은 보자기 안에는 어림잡아 서너개의 유리병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음료수라구요? 그걸 뭐하시게요?”

“그저, 제가 만든 음료수 인데요. 꽤 맛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은 제가 돈이 없어서— 제조사를 찾는 중인데—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 하고…….”

남자는 말끝을 흐리곤 칸도라를 쳐다봤다. 그리곤 병을 하나 골라 마개를 열어 칸도라에게 건넸다. 맛을 보고서 이야기하자는 뜻이었다.

칸도라는 씩 내키지 않았지만, 왠지 호기심이 일었다. 검은빛이 도는 묘한 액체는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위험한 액체일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칸도라는 고개를 두서너번 끄덕이고 그 병을 건네 받았다. 그리고 입술 끝을 살짝 뺐다. 달콤하면서 향긋한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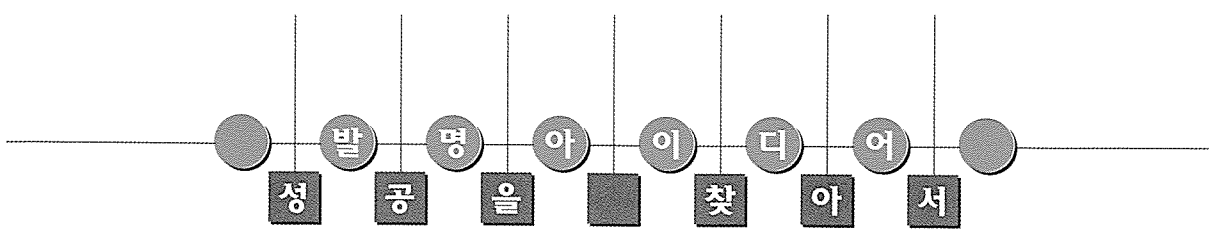
‘어, 이거 괜찮은걸?’ 이번에 한 모금을 훌쩍 들이켰다. 지금까지 한번도 맛보지 못한 묘한 맛이 입속 가득히 퍼졌다.

“어떻습니까? 좋은 맛이지요?”

칸도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색다른 맛의 음료수였다. 주스도 아니고, 단순한 설탕물도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했다.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였다. 만약에 이 음료수를 팔면 성공할 수 있으리란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젊은이들은 뭔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음악도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뿐이었고, 금요일이면 모여서 알 수 없는 춤도 추었다. 분명 신





비한 맛의 음료수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터였다.

그러나 선블리 모험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충분히 부유했다.

“왜요,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저희 마에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낮선 남자는 안타깝다는 듯이 칸도라를 응시하며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이었다.

칸도라는 뭔가 결심한 듯 입술을 꼭 깨물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제조권을 사죠.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음료를 만들거나 팔아선 안됩니다.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기겠소?”

“좋아요. 어차피 내겐 이것을 상품화할 자본이 없어요. 내 기술을 사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굳게 맞잡았다.

사내가 요구한 금액은 칸도라의 전재산에 맞먹었다. 실패할 경우 칸도라는 파산할 것이 뻔했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을 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그를 설득하고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칸도라는 약국을 판 돈을 사내에게 건네주고, 음료수의 제조권을 완전히 넘겨받았다. 그리고 당장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도박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예상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그의 새로운 음료수는 젊은이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의 음료

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에 이르렀다.

이 음료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린 히트상품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 지금의 콜라인 것이다. 칸도라가 이 음료수로 얼마나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됐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그는 보물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기에 그런 성공을 얻을 수 있었다. 성공을 위해서 누구나 발명가가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편이 더욱 성공의 길에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의외로 많다. 그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품화하는 최종 단계의 능력을 키운다면 당신도 당당히 성공한 자들의 대열에 낄 자격을 갖춘 것이다.

지금도 어딘가에 찬란한 보물이 누군가가 알아보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보물을 찾아내,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왕연중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발·특2006.12|